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공격성, 및 행복감과의 관계

공은숙¹ · 서혜석²

예수대학교 간호학부¹, 사회복지학부²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well-being, Aggression, and Happiness of the Students in Christian Universities

Eun Suk Kong¹ · Hye Seok Seo²

¹Department of Nursing, ²Social Welfare, Jesus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e aims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spiritual well-being, aggression and happiness of the students in two Christian Universities.

Method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486 students who were attending Christian Universities in Jeonbuk province. General characteristics, mean value, and correlations were performed using SPSS 18.0 Program to analyze the data.

Results: The mean value of the spiritual well-being was 72.03 (SD=9.80), the mean value of aggression was 67.56 (SD=13.90), and the mean value of happiness was 19.54 (SD=4.23). Relationships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aggress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 ($r=-.251, p<.01$), between spiritual well-being and happiness showed positive correlation ($r=.455, p<.01$), and between happiness and aggression showed negative correlation ($r=-.305, p<.01$).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s for personality training and curriculum.

Key Words: Relationships, Spiritual well-being, Happiness, Aggression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은 사춘기를 지나 성인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 성취해야 할 발달과업은 자아정체감과 타인의 정체감을 융합시키는 능력을 획득하는 것이므로, 타인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수용력을 갖고, 상호의존성을 발달시키고, 타인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한 과제로써, 자아정체감이 없는 경우에는 타인을 사랑할 능력을 상실하여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므로 (박아청, 2010), 대학생들은 자아정체감을 획득하여 영적 안녕감을 유지하면서, 타인을 사랑하고, 공감하며, 인간관계와 친밀감을 유지하는 행복감을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대부분 대학입학과 동시에 환경이 급변하여, 갑작스레 자율적인 생활을 해야 하고,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을 대하면서 혼란을 경험하며,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행동양식의 습득, 자기관리기술 등 새로운 생

Corresponding author: Eun Suk Kong, Department of Nursing, Jesus University, 168-1 1ga, Junghwasan-dong, Wansan-gu, Jeonju-si, Jeollabuk-do 560-714, Korea. Tel: 82-63-230-7761, Fax: 82-63-231-7790, E-mail: eun@mpu.ac.kr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Jesus University.

2010년 11월 15일 접수, 2010년 12월 20일 채택

활양식을 정립하고, 자신이 당면한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대처해 나가야 하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심향숙, 2003). 그러나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자기애나 경제문제, 또는 장래 취업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 영향으로 공격성이 증가하면서 (임민아, 2008; 김영선, 2000), 성폭력이나 언어폭력, 그리고 신체심리적인 공격행동이 대학 안과 밖에서 발생되고 있어 (이은진 등, 2010; 서경현 등, 2001; 안귀여루, 2006), 대학생들의 발달과업 성취에 심각한 장애가 되고 있으므로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공격성 증가는 우울이나 정서장애와 같은 정신건강문제로 연결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송정희 등, 2009), 특히 자살은 우리나라 20대 인구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0대 인구 사망원인의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청, 2009), 자살예방과 정신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도 공격성을 완화시키는 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에게 우울증, 인지능력장애, 약물남용, 대인관계의 어려움 뿐 아니라 교내에서의 사고율이 증가하고, 도중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자살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Andrews & Wilding, 2004; Hysenbegasi et al., 2005), 대학생들의 정서장애나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공격성을 완화하는 변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영적안녕감을 주목할 수 있다. 영적안녕감은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화인, 2002), 생활 스트레스 (서경현 등, 2005; 서경현과 전경구, 2004; 전경구 등, 2000)나 우울 (장은주, 2006; 서경현 등, 2005, 김은정, 2005), 그리고 자살의도 (강은실 등, 2004)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자아존중감 (강은실, 2003; 서경현 등, 2005)과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영적안녕감은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여 공격성을 낮추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윤미 등, 2008), 대인관계나 수행불안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며 (서경현 등, 2007; 김은정, 2005), 기독교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스트레스가 낮고, 자기조절이 높아졌으며, 우정과 사랑이 높아졌고, 건강의 지각에 증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연정,

2007). 또한 영적안녕수준이 증진될 때 진정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제한이 없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Diener and Seligman, 2002; Frankl, 2006; Ricard, 2006; 조정은, 2009; 최윤정, 2009; 허승연, 2009; 박성기, 2010).

본 연구자들은 기독교대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위한 세움공동체라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한 학기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대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그리고 사회성향상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서혜석과 공은숙, 2009), 인성교육을 받은 대학생 집단이 인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향상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수준과 공격성, 그리고 행복감 간에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비교적 영적안녕감을 성취하기에 좋은 환경을 지닌 기독교대학생을 대상으로 공격성, 영적안녕감 및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기독교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둘째,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공격성, 그리고 행복감의 정도를 파악하며, 셋째,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공격성, 그리고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서술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자는 매주 전교생이 모여 예배시간을 갖고, 기독교인성교육을 위한 특별교과목이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는 기독교대학의 학생으로 전라북도 J시에 위치한 2곳의 기독교대학의 간호학과와 사회복지학과 학생 500명을 편의추출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

<표 1> 조사도구의 구성내용

변수	문항구성 내용	문항수	신뢰도
인구사회적 특성	성별, 연령, 학년, 학과, 생활수준, 거주지, 개인기도횟수, 신앙생활기간, 교호출석횟수, 교회출석동기, 하나님믿음정도, 심급, 십일조, 교회직분, 교회교파, 출석인원, 부모종교, 부모결혼상태,	18	
영적안녕	종교적 안녕점수, 실존적 안녕점수	20	.856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	4	.848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9	.702
	언어적 공격성	5	.647
	분노감	5	.606
	적대감	8	.759
	전체 공격성	27	.858
계		69	

고 동의한 자에게 설문조사 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를 검토한 결과 정보가 많이 누락된 불성실하게 답을 한 14명을 제외하고 총 486명이었다. 연구자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였다.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와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1) 영적안녕

영적 안녕이란 인간의 영적본성을 최대한으로 개발시키는 능력이며 총체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의 원리와 동등한 것으로 절대자(신)와의 관계 안에서 안녕감을 갖는 종교적인 안녕과 삶의 의미와 목적에 초점을 둔 실존적인 안녕상태를 말하며(신수정, 2003), 본 연구에서는 Paloutzian과 Ellison (1982)이 개발한 영적 안녕척도를 최상순(1990)이 번안하고 강정호(1996)가 수정 보완한 총 20 문항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신 또는 초월자와의 관계에 관한 종교적 안녕과 종교와 무관하게 삶에 있어서의 의미와 목적, 만족감을 나타내는 실존적 안녕으로 나누어지며 영적 안녕점수는 종교적 안녕점수와 실존적 안녕점수를 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 안녕을 의미하며, 신뢰도 Cronbach's α = .91이다. 이 도구는 긍정형 12문항과 부정형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약간 그렇다”는 4점, “그저 그렇다”는 3점, “약

간 그렇지 않다”는 2점,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으로 하고 부정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영적으로 안녕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56으로 나타났다.

2) 주관적 행복감 척도

대상자의 주관적인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Lyubomirsky와 Lepper (1999)가 개발한 주관적 행복감 척도(subjective happiness scale)를 Seligman (2002)이 수정하고, 김인자(2006)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지는 전반적인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초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Seligman이 4개의 문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신뢰도 Cronbach's α = .82로 나타났다. 검사의 문항은 피험자들이 각각의 문항에 자기 자신을 잘 나타내도록 1점에서 7점으로 평가되는 7점 Likert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점 범위는 4점에서 28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α = .848이다.

3) 공격성 척도

Buss와 Peery (1992)가 개발한 것으로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한국어로 번안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총 7문항(1, 5, 9, 13, 17, 21, 24), 언어적 공격성 총 5문항(2, 6, 10, 14, 18), 분노감 총 5문항(3, 7, 11, 15*, 22), 적대감 총 10문항(4, 8, 12, 16, 19, 20, 23, 25, 26, 27) 등으로 구성된 4개의 하위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Likert형의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약간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4: 약간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다. AQ-K (Aggression Questionnaire-Korean Version, AQ-K)는 모두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은 모든 항목을 합계한 것으로 높은 점수는 높은 공격성을 반영한다. 위의 연구에서 공격행동 Cronbach's $\alpha = .74$, 언어적 공격행동 Cronbach's $\alpha = .73$, 분노감 Cronbach's $\alpha = .67$, 적대감 Cronbach's $\alpha = .76$ 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신뢰도는 전체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58$ 이며 신체적 공격성 Cronbach's $\alpha = .702$, 언어적 공격성 Cronbach's $\alpha = .647$, 분노감 Cronbach's $\alpha = .606$, 적대감 Cronbach's $\alpha = .759$ 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배경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영적안녕, 행복감, 공격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각각의 평균값을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영적안녕과 공격성, 행복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기독교대학생의 인구 사회적 특성

기독교대학생의 인구 사회적 특성에 대해 살펴보면 표 2에서와 같이, 총 486명의 대상 중 남자는 53명 (10.9%)이며 여자가 431명 (88.1%)으로 나타났으며, 학과는 간호학과 학생이 405명 (83.3%),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75명 (15.4%)이었다. 연령은 20세 이하가 267명 (54.9%)이었으며 21~24세의 경우는 183명 (37.7%)이며, 25세 이상은 28명 (5.8%)이었다. 학년은 1학년이 134명 (27.6%), 2학년은 129명 (26.5%), 3학년은 123명 (25.3%) 4학년은 99명 (20.4%)이었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중간정도의 생활수준이 가장 많은 401명 (82.5%)이었으며, 거주지를 살펴보면 광주 전라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437명 (89.9%)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서울, 경기, 인천과 울산, 경남, 부산이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신앙생활 기간을 살펴보면, 10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한 학생이 전체 인원 중 185명 (3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 미만이 166명

(34.2%)으로 많이 나타났다. 기독교대학생들의 교회참석 횟수는 한 주에 한 번 참석하는 학생이 117명 (24.1%)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 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참석하는 학생도 105명 (21.6%)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출석하게 된 동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모태신앙이 160명 (34.2%)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출석한 경우도 156명 (32.1%)으로 나타났다. 부모님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모두 계신 경우가 416명 (85.6%)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종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224명 (46.1%)으로 가장 많은 수를 보였으며, 무교의 경우도 115명 (31.9%)로 나타났다. 현재의 기독교대학생 신급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례를 받은 학생이 194명 (39.9%)으로 가장 많았고, 새 신자의 경우도 101명 (20.8%)으로 나타났다.

2.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 영적안녕, 행복감의 평균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 영적안녕, 행복감에 대해서 최대값과 최소값, 평균을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행복감의 경우 최대값 28점이며 평균 19.54 (SD=4.23)점이었으며 영적안녕은 최대값 100점으로 평균 72.03 (SD=9.80)점으로 높은 영적안녕을 보였다. 공격성의 경우 전체 공격성은 최대값 121점으로 평균 67.56 (SD=13.90)점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공격성은 최대값 29점이며 평균 15.55 (SD=4.22)점, 언어적 공격성은 최대값 24점으로 평균 13.32 (SD=3.34)점, 분노감 최대값 22점으로 평균 13.93 (SD=2.93)점, 적대감은 최대값 46점으로 평균 24.88 (SD=6.30)점으로 나타났다.

3.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공격성,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기독교대학생의 행복감, 영적안녕, 공격성과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행복감은 영적안녕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 = .455, p < .01$), 공격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 = -.305, p < .01$). 공격성의 하위요인 중 신체적 공격성 ($r = -.177, p < .01$)과 분노감 ($r = -.194, p < .01$), 적대감 ($r = -.379, p < .01$)은 모두 행복감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언어적 공격성은 행복감 ($r = -.047$)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기독교대학생의 인구 사회적 특성

구분		n	%	구분		n	%	
성별	남	53	10.9	학과	간호학	405	83.3	
	여	431	88.7		사회복지학	75	15.4	
연령	20세 이하	267	54.9	생활수준	상	19	3.9	
	21~24세	183	37.7		중	401	82.5	
	25세 이상	28	5.8		하	59	12.1	
학년	1학년	134	27.6	개인기도횟수	전혀 없음	106	21.9	
	2학년	129	26.5		일년에 한두번	27	5.6	
	3학년	123	25.3		기도할일 생겼을때	208	43.0	
	4학년	99	20.4		일주일 한두번	72	14.8	
			시간정해놓고 매일		71	14.6		
거주지	서울, 경기, 인천	25	5.1	신앙생활기간	1년 미만	166	34.2	
	대전, 충청	11	2.3		1-2년	30	6.2	
	대구, 경북	2	0.4		3-4년	35	7.2	
	울산, 경남, 부산	9	1.9		5-10년	46	9.5	
	광주, 전라	437	89.9		10년 이상	185	38.1	
	제주, 기타	1	0.2					
교회참석횟수	간적없다	84	17.3	교회출석동기	모태신앙	160	34.2	
	일년에 한두번	105	21.6		자발적으로	62	12.8	
	한달 한번	39	8.0		전도 받아서	156	32.1	
	한달 몇번	55	11.3		기타	53	10.9	
	한주 한번	117	24.1	하나님의 존재믿음정도	0%	47	9.3	
한주 한번보다 더	79	16.3	25%		83	17.1		
			50%		92	18.9		
			75%		77	15.8		
십일조생활	정확히 십일조 한다.	59	12.1	100%	181	37.2		
	십일조에 미치지 못함	89	18.3					
	안 한다	298	61.3					
	십일조 이상 한다	14	2.9					
직분여부	있다	107	22.0	가족관계정도	가족 모두 좋음	427	87.9	
	없다	361	74.3		가족 모두 안 좋음	58	11.9	
출석교회교파	장로교	248	57.9	출석교회인원	50명	50	10.3	
	감리교	7	1.6		100명	68	14.0	
	침례교	13	3.0		200명	73	15.0	
	성결교	17	4.0		400명	50	10.3	
	성공회	1	0.2		1000명	24	4.9	
	기타	28	6.5		3000명 이상	25	5.1	
	모름	114	26.6		모르겠다	114	26.5	
부모의 종교	불교	46	9.5	부모결혼상태	부모 모두 계심	416	85.6	
	가톨릭	50	10.3		사별로 부, 모 부재	39	8.0	
	기독교	224	46.1		부모이혼	17	3.5	
	무교	115	31.9		부모별거	4	0.8	
	기타	3	0.6		기타	2	0.4	
신급	새신자	101	20.8	전체		486	100.0	
	학습	49	10.1					
	유아세례	37	7.6					
	유아세례후 입교	43	8.8					
	세례	194	39.9					

<표 3>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 영적안녕, 행복감의 평균

항목	최소값	최대값	M±SD	
행복감	4	28	19.54±4.32	
영적안녕	29	100	72.03±9.80	
공격성	신체적 공격성	7	29	15.55±4.22
	언어적 공격성	5	24	13.32±3.34
	분노감	5	22	13.93±2.93
	적대감	10	46	24.88±6.30
	총	31	121	67.56±13.90

<표 4>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 공격성,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구분	행복감	영적안녕	공격성 전체	신체적 공격	언어적 공격	분노감	적대감
행복감	1						
영적안녕	.455**	1					
공격성 전체	-.305**	-.251**	1				
신체적 공격성	-.177**	-.146**	.747**	1			
언어적 공격성	-.047	-.003	.677**	.491**	1		
분노감	-.194**	-.156**	.674**	.467**	.319**	1	
적대감	-.379**	-.386**	.816**	.470**	.331**	.515**	1

* $p < .05$, ** $p < .01$, *** $p < .001$.

고찰

옥스퍼드 영어사전 (2005)에 의하면, 영성이란 "the real sense of significance of something"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성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영역이며, 인간은 영적인 면과 신체적, 정신적인 면이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독특한 존재이고, 한 영역의 변화는 다른 영역에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이 영적 영역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상황으로부터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Seaward, 1991).

영적안녕이란 절대자, 자신, 이웃, 환경과의 관계에서 조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람의 내적 자원이 총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Burkhardt, 1988). 영적안녕에는 수직적 영역과 수평적 영역이 있는데, 우선 수직적 영역은 종교적인 안녕으로 절대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안녕감이며, 수평적 안녕은 존재적 안녕으로 종교와는 상관없이 삶의 목적과 만족을 지각하는 것이다(Paloutzian &

Ellison, 1982). 그리하여 영적안녕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부정적인 처지와 환경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며, 내적인 조화와 평화, 감사와 만족, 타인과의 지지적인 관계 등의 특징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Vaughan, 1986).

기독교대학에서 다양한 기독교 관련 교양과목과 예배, 그리고 인성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적안녕 정도를 파악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영적안녕 정도가 최대값 100점에서 평균 72.03 (SD=9.80)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보면, 강은실 (2003)의 연구에서는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고교청소년 215명을 대상으로 영적안녕 정도를 측정된 결과 평균 41.31 (SD=12.39)점을 보였으며, 이화인 (2002)이 경기도 소재 K대학에서 간호과 재학생 222명 중 기독교를 종교로 가진 학생 94명의 영적안녕을 측정된 결과 평균평점은 3.77 (SD=0.59)점으로 나타나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결과는 75.40 (SD=11.80)점으로 나타났으며, 이영은 (2007)이 기독교대

학교 간호대학생 202명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서는 평균 64.85 (SD=9.85)점으로 나타났고, 또한 서경현 등 (2005)이 서울에 소재한 2곳의 대학에서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대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교를 가진 남학생들의 영적안녕 정도는 46.28 (SD=11.53)점으로 나타났고, 여학생들의 영적안녕 정도는 50.45 (SD=10.21)점으로 나타나, 대체로 기독교대학생들의 영적안녕 정도가 비기독교대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최상순과 김정숙 (1998)이 기독교대학과 비기독교 간호대학생들의 영적안녕수준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기독교계 간호학생의 평균이 78.31, 비기독교계 간호학생의 평균이 78.45로 두 그룹 간 영적안녕수준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당연히 기독교대학생들의 영적안녕 점수가 비기독교대학생들보다 높을 것이라고 가정하기 쉬우나, 연구자들의 견해는 본 연구의 대상자나 이화인 (2002)과 이영은 (2007)의 대상자가 대부분 간호학과 학생으로 여학생이며, 신앙심이 비교적 높은 대상자들이었으므로 대상자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분석된다. 즉, 기독교대학과 비기독교대학의 차이보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영적안녕 정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 정도는 최대값 121점 중 평균 67.56 (SD=13.90)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이은지 등 (2010)은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교 86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점수가 41.59 (SD=9.79)점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공격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기독교대학생의 공격성이 일반대학생들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 추측한 본 연구자들의 생각과 상반된 결과를 보여,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지 아니면 특수현상인지 심도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공격성을 하위요인별로 살펴본 결과 적대감의 평균이 최대값 46점 중 평균 24.88 (SD=6.30)점, 신체적 공격성은 최대값 29점 중 평균이 15.55 (SD=4.22)점, 언어적 공격성은 최대값 24점 중 평균 13.32 (SD=3.34)점, 그리고 분노감은 최대값 22점 중 평균 13.93 (SD=2.93)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으로 환산한 결과, 적대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분노감,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중 최윤미 (2008) 등이 265명의 교도소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하위요인 평균을 조사한 결과는 분노감의 평균평점이 최대값 5점 중 3.46

(SD=0.60)점, 적대감은 최대값 5점 중 3.44 (SD=0.56)점, 언어적 공격성은 최대값 5점 중 3.42 (SD=0.57)점, 그리고 신체적 공격성이 최대값 5점 중 3.08 (SD=0.48)점으로 나타나 분노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다음이 적대감이었으며, 다음은 언어적 공격성, 그리고 신체적 공격성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의 공격성향이 비기독교대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난 점에 대한 본 연구자들의 주관적 견해는 연구대상자들이 졸업 후에 보다 좋은 곳에 취업하기 위해 동급생들과 치열한 성적경쟁을 해야 하는 학교환경체계의 영향으로 공격성향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결과, 기독교대학생의 행복감 정도는 최대값 28점 중 평균은 19.54 (SD=4.23)점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을 조사한 연구가 많지 않으나 전국 대학생 남녀 1945명을 대상으로 주관적 개념의 '대학생 행복지수조사' 결과 전체의 56.7%가 평소에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들의 행복점수는 6.7점으로 100점으로 환산 시 67점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10). 본 연구대상자의 환산점수는 69.79점으로 약 2.7점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sh와 Shelly (1978)는 인간의 영적인 차원은 각 개인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위협을 경험할 때 보상기전으로써 더 주요하게 작용한다고 보고했으며, 다양한 계층의 인구를 대상으로 영적안녕이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 (이화인, 2002; 신수정, 2003; 지경애, 2004)을 보고했고, 분노가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자신이나 타인을 향한 파괴적인 공격성으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신체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영적안녕 수준이 높아지면 분노로 인해 발생하는 잘못된 감정의 조절이나 상처의 치유가 이루어져 종교적 차원에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고, 자신 뿐 아니라 대인과의 관계에서도 더할 나위 없는 관계가 형성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김종덕, 2004; 오오현, 2001), 본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과 공격성, 그리고 행복감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결과,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r = -.251$)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즉 영적안녕 수준이 올라갈수록 공격성은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조금 더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았을 때 적대감($r = -.386$)이 다른 공격성 하위요인보다 큰 비중으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은 분

노감($r=-.156$)이었고, 그 다음으로 신체적 공격성($r=-.146$)이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언어적 공격성($r=-.003$)은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무의한 결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영적안녕 수준이 높아질 경우, 적대감이 다른 하위요인보다 더 큰 폭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이는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이 낮아지면 분노감이 낮아지고, 따라서 공격적인 행동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된다. 이 결과는 영적안녕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결과들 (Walker, 2000; 서경현 등, 2005; 서경현 등, 2007; 강은실, 2004)과 동일하여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영적안녕과 행복감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455$). Ben-Shahar (2007)는 행복감에 대한 정의를 "the overall experience of pleasure and meaning"이라고 내리고 있다. 즉 행복감이란 단지 한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있더라도 잘 견딜 수 있고, 자신의 경험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서 즐거움과 의미를 갖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지각한다. 또한 즐거움은 현재 여기서 느끼는 것으로 현재의 이익이며, 의미는 목적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느끼는 것으로 행동의 결과로 미래에 갖는 이익으로 행복감은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행복감에는 긍정적인 정서나 즐거움, 그리고 의미있는 목적을 갖거나, 동기를 갖는 것,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돈이나 지위, 성공담 등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요소는 아주 단기간의 행복감을 줄 뿐이며, 곧바로 공허함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Graham (2002)은 그의 저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은 성경에 나온 '팔복'을 실천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정립하는 영적안녕 수준을 높이 갖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기독교학생을 대상으로 행복감과 영적안녕의 상관관계를 볼 때, 기독교학생의 영적안녕이 올라가면 행복감이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한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행복감과 공격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 ($r=-.305$)를 보이고 있다. 공격성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에서는 적대감 ($r=-.379$)이 가장 크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음은 분노감 ($r=-.194$)과 신체적 공격성

($r=-.177$)이 유의미한 부적상관관계를 보였고, 언어적 공격성만은 행복감 ($r=-.047$)과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기독교학생의 행복감 정도가 올라가면 공격성이 감소하며, 공격성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특히 적대감이 크게 감소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고, 분노감이나 신체공격성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언어적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게 나타나 행복감이 상승하더라도 언어적인 공격성은 크게 감소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기독교학생의 영적안녕과 공격성,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 결과는 영적안녕 수준이 상승하면 공격성이 저하되고, 행복감이 상승하면 또한 공격성이 저하되며, 영적안녕 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행복감도 상승하는 상관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파악된 내용은 기독교학생의 영적안녕과 행복감, 영적안녕과 공격성, 그리고 행복감과 공격성의 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했던 점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기독교학생들의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교육과정이나 인성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생각된다.

결론 및 제언

대학은 학생들의 사회진출을 준비시키는 곳으로 미래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해 수준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칠 뿐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감을 높이고 공격성을 잘 조절하는 인성을 훈련시켜야 할 책무를 가지게 되어 다양한 인성개발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여러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영적안녕이 공격성을 저하시키고, 행복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자들은 기독교학생의 영적 안녕감과 공격성, 그리고 행복감 정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세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였다.

연구결과, 기독교학생의 영적안녕은 비기독교학생의 수준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공격성은 일반대학생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행복감은 보통평균과 비슷한 정도를 보였다. 영적안녕이 다소 높은 것은 다양한 기독교 관련 교양수업을 접하고, 기독교 관련 인성 프로그램, 예를 들면 규칙적인 예배나, 찬양, 또는 대학교 목사의 설교나 정규적인 인성 강화훈련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의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공격성 증 적대감이 높게 나타난 것은 앞으로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적대감을 높이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연구를 제언하고 싶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감과 공격성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영적안녕감과 행복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행복감과 공격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공격성이 영적안녕보다는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수치가 더 높게 나타나 대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제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기독교대학생의 영적안녕과 행복감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교과과정개발과 공격성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성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어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적안녕과 행복감을 증진하는 교과목이나 프로그램 및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교과목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결과를 점검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강은실 (2003). 청소년의 삶의 목적, 영적안녕,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2(3), 245-259.
- 강은실, 송양숙, 조향숙, 강성년 (2004). 청소년의 자살의도, 우울, 영적안녕과의 관계. **정신간호학회지**, 13(2), 190-199.
- 김영선 (2000).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은정 (2006). **청소년의 종교성과 영적안녕이 불안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인자 (2006). **긍정 심리학: 진정한 행복 만들기**. 마틴 셀리그만 저 (김인자 역). 서울: 몰루페.
- 강정호 (1996). **암 환자의 영적안녕상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산.
- 김종덕 (2005). **기독교인의 분노 조절을 위한 목회상담학적 모형연구**. 호남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광주시.
- 박성기 (2010). **소그룹 리더의 종교성향 및 종교대처에 따른 주관적 행복감과 종교적 헌신도의 상관관계**. 총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박아청 (2010). **에릭슨의 인간이해**. 서울: 교육과학사.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 (2001). 대학생들의 테이트 폭력과 예측변인. **대한여성건강학회지**, 2, 75-98.
- 서경현, 전경구 (2004). 영적안녕, 생활 스트레스 및 대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2), 333-350.
- 서경현, 정성진, 구지현 (2005). 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생활 스트레스, 우울, 및 자아존중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1077-1095.
- 서경현, 김신섭, 박성연 (2007). 고등학생의 영적안녕과 사회불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3), 599-616.
- 서수균, 권석만 (2002). 자존감 및 자기에 성향과 공격성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4), 409-426.
- 서혜석, 공은숙 (2009).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사회성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집단상 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보호지도연구**, 15, 53-70.
- 송정희, 민경준, 박정덕, 최병선 (2009). 일 대학 신입생들의 기분장애 유병률과 위험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2(2), 169-181.
- 심향숙 (2007). **타 지역 출신대학 신입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부산.
- 안귀여루 (2006). 대학생의 성적 강요경험과 성격특성, 태도 및 성자기 폭력 경험의 관련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1), 47-61.
- 오오현 (2001). **기독교인 용서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검정**.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대구시.
- 이영은, 박혜선, 손수경 (2007). 간호대학생의 영적 안녕과 죽음에 대한 태도의 관계. **신앙과 학문**, 12(3), 195-332.
- 이은진, 김영윤, 김범준 (2010).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47-468.
- 이화인 (2002). 일부 간호대학생의 영적안녕과 정신건강과의 관계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1(1), 7-15.
- 임민아 (2007). **대학생의 생활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서울.
- 장은주 (2006). **대학생의 영성, 감성, 우울과의 상관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전경구, 정봉도, 김영환 (2000). 생활 스트레스, 영적안녕 및 우울간의 관계.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23(특집호), 311-325.
- 조선일보 (2010. 9. 30일자). “우리나라 대학생 얼마나 행복할까?”
- 조정은 (2009). **행복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행복과 우울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지경애 (2004). **간호사의 영적건강, 정신건강, 죽음의식이 호스피스 태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 석사학위논문, 대전.
- 최상순 (1990). **일 지역 성인의 영적안녕, 희망 및 건강상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최상순, 김정숙 (1998). **간호학생의 영적안녕, 희망 및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4(2), 331-342.
- 최윤정 (2009). **유아교사의 행복증진 프로그램 개발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최윤미, 이지연, 양난미 (2008). 범죄자들의 영적안녕수준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기 분조절 기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537-552.
- 통계청 (2009). 2008년도 사망원인통계 결과. 서울: 통계청.
- 허승연 (2009).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울.
- Andrews, B., & Wilding, J. M. (2004). The relation of depression and anxiety to life-stress and achievement in students. *Br J of Psychol*, 95 (4), 509-521.
- Ben-Shahar, T. (2007). *Happier*. New York: Mc Graw Hill.

- Buss, A. H. & Pee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 Pers Soc Psychol*, 63, 452-459.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science*, 13, 80-83.
- Frankl, V. E. (2006). *Man's search for meaning*. Beacon Press.
- Fish, S. & Shelly, J. A. (1978). *Spiritual care*. Illinois, Inter Varisity Press.
- Graham, B. (2002). *The secret of happiness*. Thomas Nelson, Nashville, TN.
- Hysenbegasi, A., Hass, S. L., & Rowland, C. R. (2005). The impact of depression on the academic productivity of university students. *J Mental Policy Econ*, 8(3), 145-151.
- Lyubomirsky, S., & Lepper, H.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 Indic Res*, 46, 137-155.
- The New Oxford American Dictionary (2005). *Second Edition*, Erin McKean (edit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aloutzian, R. F., & Ellison, C. W. (1982). Loneliness, spiritual well-being and the quality of life. In L. A. Peplau & D. Perman (eds.),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 (pp. 224-236). New York: John Willy & Sons.
- Ricard, M. (2006). *Happiness: A guide to developing life's most important skill*. New York: Little Brown and company.
- Seaward, B. L. (1991). Spiritual wellbeing: A health education model. *J Health Educ*, 22(3), 160-169.
- Seligman, M. E. (2002). *Authentic Happiness*. Glencoe Illinois: Free Press.
- Vaughan, F. (1986). *The inward arc: Healing and wholeness in psychotherapy and spirituality*. Boston: New Science Library.
- Walker, E. A. (2000). *Spiritual support in relation to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ggressive outcom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nner city young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USA.